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519>

JCCT 2023-5-59

월드컵 엠블럼에 나타난 시각적 특징 연구

Study Visual Characteristics of World Cup Emblems

리우용평*

YongFeng Liu*

요약 월드컵 엠블럼의 시각적 특징은 문화 및 정체성의 전달, 대회 핵심 요소 강조,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해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와 이론적 배경을 조사했다. 둘째, 상징성, 형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셋째,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기준으로 하여 형태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도구로 삼아 상징성, 형태 및 색상을 각각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월드컵 엠블럼은 민족성 상징, 생활적 상징을 많이 사용하며, 생활적 상징과 민족성 상징은 서로 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대칭 형태가 많았지만 그 후에는 비대칭 형태로 변화했다. 곡선 표현 형태가 직선 표현 형태보다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배색 이미지 스케일 분포는 대부분 경쾌하고ダイナミック하고 모던적인 배색 특징을 나타낸다. 앞으로 월드컵 엠블럼 디자인은 민족적 상징과 생활적 상징을 계속 사용한다. 엠블럼의 형태는 곡선과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고 직관적이어야 하며, 대회 주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메인 색상은 국기색을 사용하고, 보조 색상으로는 다른 색상들을 사용해야 한다. 색상의 조합은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의 경쾌하고 다이내믹하고 모던한 색상 특징과 일치해야 한다.

주요어 : 월드컵, 엠블럼, 시각적 요소, 시각적 특징

Abstract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Cup emblem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veying culture and identity, highlighting the key elements of the Games, and strengthening the brand image.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visual elements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mblem through previous studies. Second, the selection of symbolism, shape, and color was the subject of the study. Third, based on the shape-related theory based on the '100 National Cultural Symbol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IRI Color Matching Image Scale' as a tool, and a final conclusion was drawn. The World Cup emblem uses a lot of ethnic and living symbols, and the living and ethnic symbols are expressed in a combination. In the beginning, there were many symmetric shapes, but after that it changed to an asymmetric shape. The curved expression form is more used than the straight expression form. And most of the color arrangement image scale distribution shows light, dynamic and modern color arrangement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the World Cup emblem design will continue to use national and living symbols. The shape of the emblem should use curves and asymmetric designs, be intuitive, and directly reflect the theme of the competition. In addition, the national flag color should be used as the main color, and other colors should be used as secondary colors. The combination of colors must match the light, dynamic and modern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IRI color scheme image scale.

Key words : World Cup, Emblems, Visual Elements, Visual Features

*정회원,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4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0일

Received: April 25, 2023 / Revised: May 5, 2023

Accepted: May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liu1013162164@gmail.com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ankook Univ,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FIFA 월드컵(FIFA World Cup)은 현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축구 스포츠 자체를 뛰어넘어 독특한 사회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대회 개최는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뿐만 아니라 출전 국가들이 정치력, 경제력, 문화 및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 영역이다. 공식 엠블럼은 스포츠 정신과 대회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력, 역사적 배경 및 문화 이념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월드컵은 스포츠와 문화의 완벽한 결합체로 그 시각적 이미지는 개최 국가의 문화와 이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월드컵은 더 큰 매력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월드컵 엠블럼은 스포츠의 영혼과 역사적 문화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월드컵 시각적 이미지의 일부로써 색상, 그래픽, 텍스트를 사용하여 개최 국가의 문화와 역사적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그 외에 예술 전파를 통해 세계 축구 대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내적 감각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생각, 행동 및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가치를 획득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1].

본 연구는 역대 월드컵 엠블럼을 조사하여 상징성, 형태, 색상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여 월드컵의 문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이해하고 홍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월드컵 시각 자료 제작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월드컵은 1930년을 시작으로 2022년도까지 총 22회 개최되었다. 1930년부터 1950년대까지 제1회~제4회 월드컵 및 1958년에 개최된 제6회 월드컵에서는 포스터만 존재하고 엠블럼은 없었기 때문에, 총 17개의 엠블럼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 17개의 엠블럼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관련된 선행 연구와 서적, 인터넷 자료를 통해 국제 스포츠 대회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와 이론적 배경을 조사했다. 둘째, 월드컵 대회 엠블럼의 시각적 특징으로 상징성, 형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셋째,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100대 민족 문화 상징'에서 상징적 형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엠블럼의 상징적 시각적 형상을 분석했다. 기본적인 형태 분류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형 및 기타 형태로 구분하고, 디자인 분류는 대칭, 비대칭, 곡선, 직선, 곡선과 직선의 조합으로 구분하여 엠블럼의 형태 특징을 분석했다. 월드컵 대회 마크의 색조는 국기색과 기타 색상으로 나누어 기타 색상에 대해 도수 분석을 해보았다. 또한 한국 IRI 색상 연구소의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도구로 삼아 월드컵 대회 엠블럼의 색상 특징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 결론을 도출했다.

II. 이론적 배경

1. 월드컵과 엠블럼의 연관성 및 특징

국제 축구 연맹 월드컵(FIFA World Cup)은 월드컵(World Cup)이라고 약칭하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만 참가하는 국제 축구 대회이다. 세계 축구 최고의 관리 기관인 국제 축구 연맹(FIFA)이 4년마다 개최한다. 1930년 첫 대회부터 2023년까지 93년간 열리며, 현재까지 22회 대회가 개최되었다[2]. 월드컵 결승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고 시청하는 스포츠 이벤트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경기는 누적 약 50억 명의 관객이 관람했으며 결승전에는 약 15억 명의 관객이 참가했다[3].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서 대규모 시각적 이미지 전시 및 예술 축제이며 인류 사회의 물질적 문명과 정신적 문명의 핵심이 담겨 있다.

월드컵의 시각적 이미지는 월드컵 축구 스포츠의 빠질 수 없는 구성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발전과 함께 월드컵 정신을 형성하고 이념을 전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역대 월드컵의 엠블럼이다. 엠블럼은 '국가, 조직 또는 가문의 독특한 문장 또는 상징물'로 정의된다[4]. 월드컵 엠블럼은 상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최국 간의 상호 소통의 중심이다. 주최국의 상징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엠블럼은 이미 월드컵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깊은 내용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있다[5].

2. 선행연구

국제 스포츠 대회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희세, 최정인(2008)은 국제 스포츠 대회 엠블럼과 포스터에서 상징적 요소의 연구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홍보물의 디자인 방향을 탐색하고,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를 형태, 상징적 요소 및 색상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분석하였다[6]. 가옥비(2011)는 주최국 상징성 연구에서, 주최국이 제작한 엠블럼의 형상을 분석하여, 월드컵 엠블럼이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7]. 조승래, 김효성(2011)은 올림픽 엠블럼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국가 브랜드의 관점으로 상징성 요소와 모양을 분류하여, 국가 이미지를 반영하는 엠블럼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특성과 유효한 전략을 제시하였다[8]. 구환영, 정유경(2013)은 동계 올림픽 엠블럼 시각적 특성 연구에서, 상징적 요소, 디자인 형태 요소, 색상 등의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올림픽 엠블럼의 상징성과 시각적 표현 특징, 그리고 이러한 엠블럼 디자인의 변화와 방향성을 분석하였다[9]. 이미정(2019)은 하계 올림픽 대회 엠블럼의 민족 문화 상징 연구에서, 민족 문화적 특징을 가진 시각적 요소를 상징적 요소로 분류하여, 올림픽 엠블럼에서 다양한 시기와 나라에서 나타난 상징적 유형을 연구하였다[10]. 5개의 선행연구 표 1에서 나타난 시각적 요소는 상징적 요소가 5회, 형태와 색상이 각각 3회 나타났다. 따라서 월드컵 엠블럼의 시각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상징성, 형태, 색상 이 세 가지 방면에서 탐구하고 분석한다.

표 1. 국제 스포츠 대회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
 Table 1. Visual Elements of the International Sports Festival Emblem

연도	저자	시각적 요소
2008	이희세, 최정인	형태, 상징 요소, 색상
2011	가옥비	상징 요소, 색상
2011	조승래, 김효성	상징적 요소, 형태
2013	구환영, 정유경	상징 요소, 형태, 색상
2019	이미정	상징 요소

III. 월드컵 엠블럼 분석기준과 도구

1. 상징적 요소

엠블럼은 국가 상징성을 지니며, 상징 요소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특징을 전달할 수 있다. 2006년 7월 26일 발표된 대한민국 ‘100대 민족 문화 상징’은 민족 문화, 전통과 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11]. 이는 민족 상징, 지역과 자연 상징, 역사 상징, 사회와 생활 상징, 종교와 사상 상징, 언어와 예술 상징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 논문으로써 이미정(2019)은 엠블럼에 관한 민족 문화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자연적 요소, 인위적 요소 및 눈과 관련된 테마 유형으로 나누고 상징성을 분석했으며 서로 다른 시대와 국가에서의 상징 유형을 연구했다[10]. 반면 가옥비(2011)는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엠블럼의 국가 상징성을 분석했다[7].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월드컵 대회 엠블럼의 상징적 요소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했다. 믿음과 사상 상징 요소는 월드컵 대회 엠블럼에서 드러나지 않아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6가지 상징 유형 중 민족 상징, 자연 상징, 역사 상징, 생활 상징, 예술 상징 5가지 상징 표 2를 사용했다[12].

표 2. 민족문화상징 유형 분류
 Table 2. Categorization of National Cultural Symbols

상징 유형	세부 상징 요소
민족상징	국기, 국가명칭, 국가 상징물(국화 등), 휘장, 원주민기
자연상징	자연 환경(산 등), 인공 및 자연 경관, 자연 산물(동식물), 과학기술
역사상징	유물, 유적지, 문화재, 전통 역사와 사상, 인물, 사찰, 전통 놀이
생활상징	의식주 생활, 체육, 건강, 생활 방식
예술상징	지명의 유래 및 전설, 미술, 축제, 공연, 전시 및 박람회, 언어, 음악, 문학

2. 형태적 요소

<형의 발상-형태의 연구를 위한> 책에서 스스미 나미오(1994)는 형태의 이해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 디자인, 건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책에서는 ‘현실 형태’와 ‘이념 형태’ 두 가지 분류 방법을 소개하며, 형태를 연구하는 데 이 방법을 활용하면 형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래픽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3]. 이 연구에서는 현실 형태에서 대칭과 비대칭, 곡선과 직선을 분석했다[6].

3. 색상적 요소

월드컵 엠블럼의 개최국 상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엠블럼의 색상은 주최국 국기 색상과 다른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이로 인해 엠블럼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최국 국기 색상 및 기타 색상 간의 조합 특징을 분석할 예정이다.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14]은 배색 이미지의 미세한 차이점을 표현하는 삼원색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부드러움-강인함’과 ‘동태-정태’의 색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각 색상 배색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림 1에 명시되어있는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이 월드컵 엠블럼에 대해 대입한 색상으로 대입해 분석한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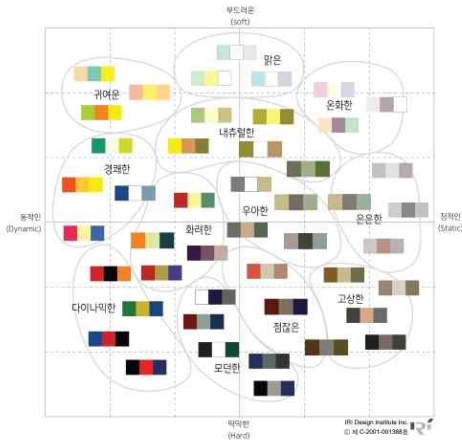


그림 1.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Figure 1. IRI Color Image Scale

IV. 월드컵 엠블럼의 시각적 특징 분석


1. 상징적 요소 분석

표 3. 드컵 엠블럼에 나타난 상징적 요소
Table 3. Symbolic Elements in the World Cup Emblem

개최 회수	개최 년도	개최지	엠블럼	상징적 요소
1	1930	우루과이	무	
2	1934	이탈리아	무	
3	1938	프랑스	무	
4	1950	브라질	무	
5	1954	스위스		지구, 국기, 축구
6	1958	스웨덴	무	

7	1962	칠레		경기장, 축구, 지구, 국기
8	1966	잉글랜드		국기, 축구, 지구, 줄리메 컵
9	1970	멕시코		축구
10	1974	서독		축구, TV
11	1978	아르헨티나		축구, 양손, 국기
12	1982	스페인		축구, 스페인의 국기
13	1986	멕시코		공, 지구, 국기
14	1990	이탈리아		축구, 국기
15	1994	미국		축구, 국기
16	1998	프랑스		축구, 지평선, 국기
17	2002	한국, 일본		FIFA 월드컵 트로피, 태극도, 국기
18	2006	독일		웃는 얼굴, FIFA 월드컵 트로피, 국기
19	2010	남아공		사람, 축구, 국기, FIFA 월드컵 트로피
20	2014	브라질		FIFA 월드컵 트로피, 손, 국기
21	2018	러시아		FIFA 월드컵 트로피, 별하늘, 국기
22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

			트로피, 아랍의 전통적인 모직 술, 모래 언덕, ∞ 기호, 국기
--	--	---	---

		
--	--	--

월드컵 엠블럼의 상징요소 유형별 분류 표 4에 따라 분류된다. 5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22년에 개최한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의 엠블럼이다. 민족 상징, 자연 상징, 역사적 상징, 생활적 상징, 예술적 상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초로 5개의 상징을 나타낸 월드컵 엠블럼이다.

월드컵 엠블럼 중 3 가지 상징을 가진 것은 총 7개다. 그중 민족 상징과 생활적 상징의 조합은 7회 있었으며 자연 상징은 6회, 역사적 상징은 1회 나타났다. 2 가지 상징을 가진 엠블럼은 총 8개이며 생활적 상징은 8회, 민족 상징은 7회, 자연 상징은 1회 나타났다. 1 가지 상징을 나타낸 엠블럼은 단 1개이며 생활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월드컵 엠블럼의 상징요소 유형별 분류
 Table 4. Classification of World Cup Emblems by Symbolic Element Type

상징 유형	엠블럼 사례	개수
민족 상징		15
자연 상징		8
역사 상징		2
생활 상징		17
예술 상징		1

표 5. 월드컵 엠블럼 대회별 상징 유형 분류
 Table 5. World Cup Emblems Breakdown of symbol types by competition

국가	회/년도	상징 유형	개수
스위스	제5회/ 1954	민족상징, 자연상징, 생활상징	3
칠레	제7회/ 1962	민족상징, 자연상징, 생활상징	3
잉글랜드	제8회/ 1966	민족상징, 자연상징, 생활상징	3
멕시코	제9회/ 1970	생활상징	1
서독	제10회/ 1974	자연상징, 생활상징	2
아르헨티나	제11회/ 1978	민족상징, 생활상징	2
스페인	제12회/ 1982	민족상징, 생활상징	2
멕시코	제13회/ 1986	민족상징, 자연상징, 생활상징	3
이탈리아	제14회/ 1990	민족상징, 생활상징	2
미국	제15회/ 1994	민족상징, 생활상징	2
프랑스	제16회/ 1998	민족상징, 자연상징, 생활상징	3
한일	제17회/ 2002	민족의 상징, 역사의 상징, 생활의 상징	3
독일	제18회/ 2006	민족상징, 생활상징	2
남아공	제19회/ 2010	민족상징, 생활상징	2
브라질	제20회/ 2014	민족상징, 생활상징	2

러시아	제21회/ 2018	민족상징, 자연상징, 생활상징	3
카타르	제22회/ 2022	민족상징, 자연상징, 역사상징, 생활상징, 예술상징	5

월드컵 엠블럼 대회별 상징 유형 분류 표 5에 따라 분류된다. 민족 상징을 표현한 나라는 15개, 자연 상징을 표현한 나라는 7개, 역사적 상징을 표현한 나라는 2개, 생활적 상징을 표현한 나라는 17개, 예술적 상징을 표현한 나라는 1개다. 그중 생활적 상징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민족 상징이다. 17회 월드컵들의 엠블럼 중 생활적 상징과 민족 상징 조합은 15회 나타났다. 추가로 민족 상징은 매년 국기를 상징 요소로 하고 생활 상징은 축구 또는 트로피를 상징 요소로 표현했다.

2. 형태적 요소 분석

표 6. 형태에 따른 분류
Table 6. Categorize by shape

분류	형태	엠블럼
삼각형		
사각형		
원형		
육각형		
기타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및 원형이 있다[16]. 엠블럼 이미지가 표현한 이미지를 앞서 말한 형태와 기타 이미지 표 6로 나누어 분류한다. 여기서 말한 기타 이미지는 월드컵 트로피를 사용한 디자인을 뜻한다. 2002 월드컵은 한, 일 양국이 공동 개최했

며 엠블럼은 월드컵 트로피의 이미지를 사용해 디자인한 것이다. 이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트로피 이미지를 메인 시각적 이미지로 한 엠블럼이다[17]. 그 후 2006년도와 2010년도에는 트로피를 월드컵 엠블럼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고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아예 트로피 이미지를 사용해 엠블럼을 디자인했다.

사각형 이미지가 7개로 제일 많고, 원형은 5개, 기타 이미지는 3개가 있으며 삼각형과 육각형은 각 1개로 가장 적다. 1954년~2010년은 주로 원형 및 사각형을 많이 사용했으며 2018~2022년 연속 3회 간 트로피 디자인으로 한 이미지이다.

표 7. 월드컵 엠블럼 조형별 분류
Table 7. World Cup emblems categorized by geometry

대칭		5
비대칭		12
곡선		11
직선		2
곡선 직선 결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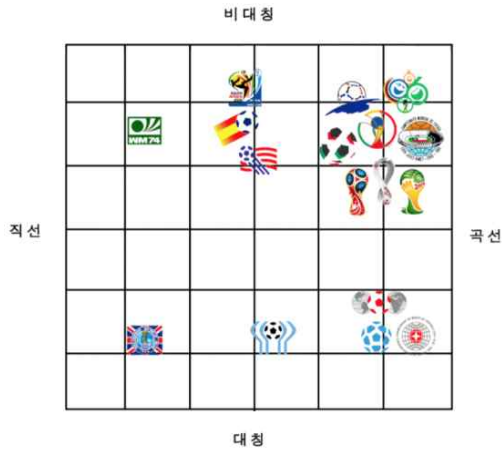


그림 2. 월드컵 엠블럼 형태별 그룹핑
 Figure 2. Grouping by World Cup Emblem Shape

엠블럼 디자인 중 대칭미는 일종의 구성 형식이다. 균형이 맞고 안정적인 시각적 느낌을 주며 로고에 감성미와 이성미를 부여한다. 비대칭은 이미지의 시각적 균형감과 무게감이 같지만 각 파트가 각기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디자인에서는 각 요소 간의 균형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비대칭 안에서 평온함을 찾아 미적 감각을 만들어야 한다[18]. 직선과 곡선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직선만 사용한 이미지와 곡선만 사용한 이미지 그리고 직선과 곡선을 조합해 구성된 이미지로 나누어진다. 직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는 안정적이고 평등한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곡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는 유연하고 장력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는 서로의 결합으로 변화가 많으며 강력한 미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19].

표 7은 월드컵 엠블럼 디자인에 대한 분류로 엠블럼을 대칭, 비대칭, 곡선, 직선 그리고 곡선과 직선 결합 이렇게 5종류로 분류한다. 그림 2를 보면 총 17회 월드컵의 엠블럼 중 대칭은 5개, 비대칭은 12개, 곡선은 11개, 직선은 2개, 곡선 직선 결합은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4년에서 1986년까지 총 8회 월드컵에서는 대칭과 비대칭 디자인이 모두 있었지만 1990년부터 2022년 총 9회 월드컵에서는 비대칭 디자인만 사용되었다. 곡선 디자인 엠블럼과 곡선 디자인 엠블럼을 비교해 보면 곡선 디자인이 직선 디자인보다 많다. 직선 디자인은 초기 월드컵 엠블럼에서 2회 나타났지만 곡선 디자인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표 8. 월드컵 엠블럼 형태 도포분

Table 8. World Cup Emblem Shape Application

곡선과 비대칭	기타	곡선과 대칭	직선과 대칭	직선과 비대칭
8	4	3	1	1

표 8을 보면 17개의 엠블럼 중 8개나 되는 곡선과 비대칭 엠블럼 이미지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4개, 곡선과 대칭 3개, 직선과 대칭 그리고 직선과 비대칭 각 1개다. 부호 디자인이 디자인 미적 개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에서 제시한 분류 방식에 의해 취향과 곡선 그리고 취향과 대칭의 시점에서 보면: 첫 번째, 선호도와 곡선은 정비례 관계이며 취향은 부호 디자인의 곡선 감각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두 번째, 선호도와 대칭은 반비례 관계이며 선호도는 부호 디자인의 대칭 정도 증가에 따라 하락하고 비대칭에 가까운 적당한 수준일 시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리하여 부호 디자인 시 사용하는 곡선이 적당하고 비대칭일 경우 선호도에 대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색상적 요소 분석

표 9. 엠블럼의 색상 조합

Table 9. Color combinations for emblems

회수	엠블럼	색상	조합	국기색 제외 색상수
5			국기색+기타색	1
7			국기색+기타색	4
8			국기색+기타색	3
9			기타색	2
10			기타색	1
11			국기색+기타색	1
12			국기색+기	1

			타색	
13			국기색+기타색	1
14			국기색+기타색	1
15			국기색+기타색	1
16			국기색+기타색	1
17			국기색+기타색	3
18			국기색+기타색	3
19			국기색+기타색	2
20			국기색+기타색	1
21			국기색+기타색	2
22			국기색	0

표 10. 국기색 제외 색상
Table 10. Colors other than flag colors

0도	1도	2도	3도	4도
1	9	3	3	1

엠블럼 색상 조합 표 9에 따라 분류하면, 17회 월드컵의 엠블럼 중 국기색과 기타 색상의 조합은 14개, 기타 색상만 사용한 것은 2개, 국기색만 사용한 것은 1개가 있다. 이 중 국기색을 사용한 엠블럼은 15개가 있다. 국기색을 제외한 색상 도수 표 10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0도는 1개, 1도는 9개, 2도와 3도는 각 3개, 4도는 1개다. 그중 1도의 수량이 제일 많으며 0도와 1도의 수량이 제일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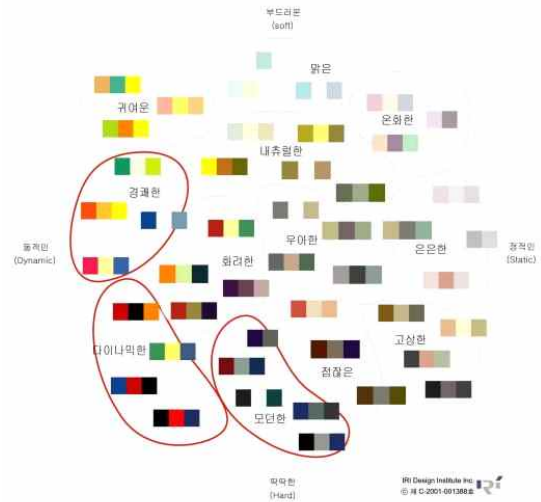


그림 3.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분포
Figure 3. IRI Colorization Image Scale Distribution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은 색상 이미지로 인한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이로 인한 감정을 기반으로 감성의 기준을 구분하며 색상의 배색을 이미지 공간 축에 삼입해 색상으로 인해 느끼는 심리 감성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지표이다[21]. 월드컵 엠블럼에 사용되는 색상을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 내 표시를 해본 결과 배색 이미지 스케일 분포 그림 3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경쾌하고 다이나믹하고 모던한 배색으로 표현된다.

V.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월드컵 엠블럼의 시각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월드컵 엠블럼과 상징성을 이해해 봤다. 대한민국 100대 민족 문화 상징의 분류 기준을 의거하고 월드컵 엠블럼이 나타내는 상징성 시각적 특징을 기준으로 잡아 5종류로 상징 유형을 나눠 유형 분석을 진행해 봤다. 진행해 본 결과 엠블럼 중 표현되는 상징은 3종류로 집중되어 있다. 그중 민족 상징, 자연 상징 및 생활적 상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생활적 상징과 민족 상징을 조합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민족 상징은 매번 국기 상징 요소로 나타나며 생활 상징은 축구 또는 트로피의 상징 요소로 나타난다. 특히 새로 개최한 카타르 월드컵의 엠블럼은 최초로 5종류의 상징이 표현됐다.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은 기본 형태와 디자인 원리로 나눠진다. 엠블럼의 디자인은 사각형과 원형에 치중되

어있다. 하지만 최근 몇 회 월드컵 엠블럼을 통해 디자인 형태가 트로피 이미지를 위주로 하는 디자인으로 많이 변경됐다. 디자인 원리에 대해선 초기에는 대칭 디자인이 많았지만 후기에는 비대칭 시각 표현 디자인으로 전환됐다. 곡선 표현 디자인은 확실히 직선 표현 디자인보다 많고 초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표현되고 있다.

월드컵 엠블럼의 색상은 주최국 국기 색상과 기타 색상과의 조합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국기색과 기타 색상 1도를 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국기색과 기타 색 중 0 도와 4 도와의 조합이 가장 적다. 엠블럼의 색상 분류 중 엠블럼이 사람에게 나타내는 모든 색상 즉 국기색과 기타 색을 색상마다 이미지 색상 공간 내에 대입해 본 결과 배색 이미지 스케일 분포는 대부분 경쾌하고ダイナミック하고 모던적인 배색 특징을 나타낸다.

시간으로 분류하면 상징성에 대해서 1954년부터 1998년까지 축구와 지구 또는 자연 상징 요소를 사용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는 트로피와 사람 또는 사람의 생활 방식 상징 요소를 사용했다. 디자인 방면에서 1954년부터 1994년까지 직선 요소 및 곡선과 직선을 조합하는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곡선 요소를 위주로 나타내고 있다. 엠블럼 디자인은 안정적인 이미지에서 자유롭고 경쾌한 디자인 특징으로 많이 전환됐다. 색상 관련해서는 1954년부터 1970년까지 국기 외에도 기타 색상도 많이 사용됐다. 1974년부터 1998년까지 국기색 외에는 명도가 낮은 색상만 사용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기 색상 외에 다시 기타 색상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타 색상에 사용 수량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은 최초로 국기색만 사용하였다.

VI. 결 론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월드컵 엠블럼은 대회 주제와 주최국 이미지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상징 요소가 축구에서 월드컵 트로피로 변경되었다. 지구와 자연에서 사람의 생활로 변화되고 스포츠 형식에서 스포츠 정신으로, 외부를 주목하는 것에서 인간 자체를 주목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상징 요소가 변했다. 반대로 상징 요소의 반복 사용

은 단일한 표현 내용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엠블럼 디자인은 이전 대회 엠블럼의 상징적 특징을 계승하면서, 더 많은 내부 의미를 반영하는 다른 상징 요소를 더하여 엠블럼이 보다 풍부한 의미를 나타내게 됐다.

1954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로 사각형과 원형 등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하여 시각적 특징이 없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사용되는 월드컵 트로피 형태의 디자인에서 큰 도약을 이루며, 식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곡선과 비대칭적인 형태의 조합은 유연하고 변화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스포츠 경기의 주제를 표현하는 데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월드컵 로고의 색상은 국기색을 메인으로, 다른 색상은 보조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기색은 한 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색상이며, 사람들이 해당 국가를 빠르게 인식하는 기준이 된다. 다른 색상은 주제를 표현하는 데 따라 장식적인 요소나 설명적인 부분에 사용된다. 주, 보조 색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개최국의 호스트 위치를 강조하고 동시에 엠블럼 전체 색상을 IRI 배색 이미지 스케일에 맞추어 사용하면서 경쾌하고 다이내믹하고 모던한 색상 조합 특징을 나타냈다.

References

- [1] G.T. Song, A.Y. Choi, "The Design and Communication Strategy of Virtual Idols 'Luo Tianyi (洛天依)',"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1, No. 2, pp. 45-54, 2023. DOI:https://doi.org/10.17703/IJACT.2023.11.145
- [2] Wikipedia, History of the FIFA World Cup. <https://en.wikipedia.org/wiki/FIFA>
- [3] Namuwiki, FIFA World Cup. <https://namu.wiki/w/FIFA>
- [4] Wikipedia, Emblem. <https://en.wikipedia.org/wiki/Emblem>
- [5] G.M. Kim, "A Study on Livestock Symbol Representation Using Visual Information Metadat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2, pp. 191-196, 2018. DOI:http://dx.doi.org/10.17703/JCCT.2018.4.2.191
- [6] H. S. L ee, J.I. Choi, "A Study on Symbol

- Elements Represented in the Emblem Mark and the Poster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Vol. 20, No.(-), PP. 103-113, (2008). DOI : 10.21326/ksdt.2008..20.009
- [7] J.Y. Fei, The research on the host country’s symbolism in the emblems for the World Cup, M.A.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n, 2011.
- [8] S.R. Cho, S.H. Kim, “National Identity Reflected in the Olympic Emblem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10, pp. 147-155, 2011.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0.147>
- [9] H.Y. Gu, Y.K Jung, “A Study on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Winter Olympics Emblems,”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11, No. 2, pp. 127-138, 2013. DOI : 10.18852/bdak.2013.11.2.127
- [10]M.J. Lee, “Study on the Symbol of National Culture of the Summer Olympic Emblem,”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 17, No. 3, pp. 121-132, 2019. DOI : 10.18852/bdak.2019.17.3.121
- [11]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100 national cultural symbols. <https://www.kculture.or.kr/cms/content/view/452>
- [12]H.M. Lee, Study of Olympic emblems as Mega events and the signification of national image, Ph.D.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13]N. Sumi, Morphogenesis - for the study of morphology, pp. 137, 1994.
- [14]Image Research Institute Inc, Color Image Space. <http://www.iricolor.com>
- [15]Brunch, Why does it take science to choose a brand color?. <https://brunch.co.kr/@jinikjun/61>
- [16]C. Wallschlaeger, Basic Visual Concepts And Principles For Artists, Architects And Designers, pp. 338, 1998.
- [17]National Archives of Korea, Official competition emblems and posters.<https://theme.archives.go.kr/next/worldCup2009/openingEmblem.do>
- [18]J. Luffarelli, A. Stamatogiannakis, H.Y. Y, “The visual asymmetry effect: An interplay of logo design and brand personality on brand equity,” .Vol. 56, No. 1, pp. 89-103, 2019. DOI: <https://doi.org/10.1177/0022243718820548>
- [19]C. N. Wu, Artistic Morpholog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PP 60, 2003.
- [20]E.J. Kim, C.S. Hong, “The Influence of Aesthetic Elements on Affect Symbol Design,” Korea Society of Design Science, Vol. 19, No. 2, pp. 121-128, 2006.
- [21]Image Research Institute Inc, The Color for designer, Youngjin dotcom, PP. 25, 2004.